

전 구단 한 차례 시리즈 마친 KIA, 남은 것은 복수뿐

KIA타이거즈 주간전망

22~24일 삼성·25~27일 LG전
 지난 경기 각각 1승 1패·2패
 김도현·살아난 불펜 활용 '맛볼'
 김도영 훈련 가능 소식 호재도



KIA타이거즈가 지난 20일 두산과의 경기를 끝으로 KBO 리그 모든 구단과 한 차례씩

시리즈를 치렀다. 21일 기준 4월 들어 가장 높은 순위인 6위에 올라있는 KIA는 이번주 5위 삼성과 1위 LG를 상대한다. KIA가 높은 순위에 있는 두 팀을 상대로 우세승을 거둔다면 상위권 도약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한주다.

KIA는 21일 기준 23경기에서 11승 12패로 6위를 기록 중이다.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다소 아쉬운 성적이지만, 지난 12일 리그 최하위까지 추락한 뒤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데다 최근 10경기에서 6승 4패를 기록하고 있어 이번 주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KIA가 22일부터 3연전을 치를 상대는 지난해 한국시리즈에서 만났던 삼성 라이온즈다. 이번 시즌 KIA와 1승 1패를 한 삼성은 최근 10경기에서 3승 7패로 하락세를 띄고 있지만, 테이블세터인 김지찬(타율 0.383)의 타격을 활용해 중심 타선까지 활약하고 있어 KIA의 마운드를 흔들

2025 KBO리그 순위 (21일 현재)

순위	구단	게임	승	패	무	승률	승차
1	LG	23	18	5	0	0.783	0.0
2	한화	25	14	11	0	0.580	5.0
3	KT	23	12	10	1	0.545	5.5
4	롯데	25	13	11	1	0.542	5.5
5	삼성	24	12	12	0	0.500	6.5
6	KIA	23	11	12	0	0.478	7.0
7	SSG	21	10	11	0	0.476	7.0
8	두산	22	9	13	0	0.409	8.5
9	NC	19	7	12	0	0.368	9.0
10	키움	25	8	17	0	0.320	11.0

들 예정이다.

KIA도 이에 맞서 '삼성 저격수' 김도현을 첫 경기 선발로 출격시켜 기세를 잡을 계획이다. 김도현은 지난 시즌 삼성을 상대로 3경기에 등판해 10.2이닝 4피안타(0피홈런) 무실점 3사사구 9탈삼진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지난 2일 삼성과의 1차전 선발 등판에서도 6이닝 5피안타 2실점(2자책) 1사사구 7탈삼진으로 삼성 타자들을 무력화했다.

마무리 정해영을 필두로 최지민, 전상현, 조상우 등 불펜 필승조의 분위기도 살아나고 있는 점도 호재다. 지난 3일 기준 정해영의 평균자책은 9.00이었으나 15일 4.50을 기록하더니 21일 2.61까지 내려왔다. 최지민도 15일 평균자책 2.35→21일 1.64, 전상현 11.57→6.48, 조상우 2.57→1.69로 불펜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KIA타이거즈 선수단이 지난 20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뱅크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6-2로 승리한 뒤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KIA는 삼성과 3연전 뒤 최근 10경기에서 7승 3패로 리그 내 저승사자로 불리는 LG를 만난다. KIA는 지난 4일과 6일 LG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 각각 2-8, 1-5로 2연패를 당했다. 하지만 당시 KIA의 주전급 선수들이 부상으로 대거 이탈했었기에 이번 경기에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무릎 부상으로 인해 LG와의 첫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던 내야수 박찬호와 좌측 중야리 근육 손상으로 두 경기 모두 참여하지 못했던 김선빈도 돌아왔다. 특히 지난해 MVP를 수상하고 팀의 통합 우승을 이끈 KIA의 슈퍼스타 김도영이 오는 LG전에 맞춰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병원에서 김도영이 초음파 검진을 받은 결과 정상 훈련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22일부터 기술 훈련에 들어가

23일 퓨처스(2군) 경기에 출전, 24일 라이브 배팅 등 훈련을 소화한 뒤 1군 콜업에 대기한다는 것이 KIA 관계자의 설명이다.

개막 이후 한번도 갖고있는 전력을 전부 활용한 경기가 없었던 KIA가 드디어 완전체로 돌아와 '디펜딩 챔피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정현, 2025 광주오픈 챌린저 테니스 본선 16강 진출

콩스탕 레스티엔느 2-0 완파
 장점인 양손백핸드 등 위력 폭발
 "폼이 완전 살아난 것 같아"
 박의성은 1m96 장신 꺾고 본선행



한국 테니스의 '기린아' 정현(29·사진)이 2025 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투어 테니스대회(총상금 10만달러) 본선 첫 경기에서 승리했다.

정현은 21일 광주광역시 진원국제테니스장 센터코트에서 열린 대회 본선 남자 단식 1라운드(32강전)에서 콩스탕 레스티엔느(32·프랑스)를 2-0(6-1 6-4)으로 꺾고 16강에 안착했다.

지난주 부산오픈 챌린저 8강 진출로 인해 세계랭킹이 40계단이나 뛰어오른 정현(438위)은 이날 세계 180위 콩스탕 레스티엔느(32·프랑스)를 맞아 안정적 수비와 파워 넘치는 양손 백핸드를 구사하며 1시간32분 만에 완승을 거뒀다.

월요일인데도 코트를 찾은 수백명의 팬들은 정현의 멋진 샷이 폭발할 때마다 박수를 치며 환호를 했다. 정현은 아직 전성기 때 기량엔 다소 못 미치지만, 멋진 백핸드 패싱샷과 그물망 수비로 팬들의 성원에 한껏 보답했다.

정현은 경기 뒤 프레스룸 인터뷰에서 "1회전이라 힘들었다. 상대가 드롭샷 등을 구사하며 나를 많이 뛰게 만드는 스타일로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첫 세트를 쉽게 풀었다. 2세트도 잘 마무리 한 것 같다"며 "10년 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때 팬들에게 좋은 모습(남자단식 금메달)을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그런 모습을 보여드

려 기분이 좋다"고 경기 소감을 밝혔다. 그는 2라운드 상대에 대해선 "저보다 랭킹이 높고 한번도 붙어본 적이 없는 선수들이다. 조금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자신을 낮췄다.

정현은 2018년 호주오픈 때(남자단식 4강 패거)와 비교해 몇 %나 기량을 회복한 것 같느냐는 질문에는 "몇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근 몇년간 복귀를 시도한 것 중에서 지금이 제일 컨디션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파 강호 박의성(24·대구시청)은 이날 오전 열린 남자 단식 예선 결승에서 1m96cm 장신 왼손잡이인 세계 342위 페트르 바르 비류코프(23·러시아)를 2-1(6-4 3-6 7-5)로 누르고 본선 1라운드에 진출했다. 예선에 출전한 한국 선수 가운데 유일하다.

박의성은 경기 뒤 "상대 서브가 너무 강했으니 리턴이 잘 돼 이길 수 있었던 것 같다. 라인 시비가 있었지만 결과가 좋았다"고 승인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회 목표에 대해 "대회에 출전하면 언제나 우승이 목표"라고 당차게 말했다.

최동환 기자



21일 장성 흥길동체육관에서 열린 제64회 전남도체육대회 폐회식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순천시 선수단을 비롯해 2위 여수시, 3위 광양시, 4위 장성군 선수단 등이 시상상을 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순천시, 전남체전 2년 연속 종합우승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폐막
 사격 김해운·육상 어재혁 MVP
 종합순위 2위 여수시·3위 광양시

순천시가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순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자 통산 10번째 우승을 거머쥐었다.

200만 전남도민이 스포츠 축제인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가 21일 장성흥길동체육관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장성군 창군 이래 처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전남 22개 시·군에서 총 6950명(선수 4605·임원 2345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축구, 육상 등 23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번 대회 종합우승은 순천시가 차지했다. 순천시는 종합점수 4만3275점을 획득

득,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자 통산 10번째 종합 우승기를 휘날렸다. 순천시는 이번 우승으로 여수시(18회 우승)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전남체전 종합 우승 시·군이 됐다.

여수시가 4만675점으로 2위에 올랐고, 광양시가 3만7025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개최지인 장성군은 3만4120점으로 종합 4위에 올랐다.

최우수선수상은 사격 종목에서 600점 만점으로 대회신기록(종전기록 599점)을 세운 김해운(여·여수시)과 육상 종목 높이뛰기에서 1m95로 대회신기록(종전기록 1m89)을 경신한 어재혁 선수(남·무안군)가 공동 수상했다.

모범선수단상은 화순군이, 모범종목단체상은 전남수영연맹이, 장려상은 곡성군·해남군·진도군이 각각 선정됐다. 특별상인 화합상·질서상·우정상은 무안군·영암군·구례군이 각각 수상했다.

지난 대회보다 성적이 향상된 시·군에 주어지는 성취상은 장성군, 고흥군, 보성군이 1~3위를 차지했다.

특별봉사상은 개최지 장성군 자원봉사자들을 대표해 (사)해병대전우회 장성군 지회가 수상했다.

명칭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선수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뜨거운 열정과 투지는 전남 스포츠의 미래를 열어가는 힘찬 동력"이라며 "전라남도는 선수 여러분이 마음 편히 훈련에 전념해 최고의 기량으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진호 전라남도체육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선수 여러분의 맘과 투지, 장성군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투철한 봉사정신이 있었기에 이 감동의 무대를 함께할 수 있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전남 체육의 저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